

體質에 應用되고 있는 針治療法에 對한 考察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I. 緒 論

東西洋을 莫論하고 體質에 對한 理論은 長久한 歷史속에서 多樣하게 提示되어 왔다.

西洋의 경우 Hippocrates 와 Galenus가 主張한 四體病理說, 四氣質說을 비롯해서 E. Kretchemer의 三體質類型論, 東洋의 黃帝內經上의 五態人論과 陰陽二十五人論 등이 있으나 이들은 大部分, 心理學이나 精神病態學에서 應用되는 程度이거나 外型上의 特徵만을 主로 言及하고 있어 實際臨床에서는 그다지 利用되지 않고 있다.

體質에 따라 臟象, 生理, 病理, 診斷, 藥物에 연계를 갖고 應用될 수 있는 理論은 李⁴⁾가 四象醫學을 창안하면서 提示되었다고 볼 수 있다.

四象醫學뿐만 아니라 東洋醫學에서 主로 臨床에 應用되는 方法은 크게 藥物과 鍼灸治療를 들 수 있다.

四象醫學분야에서 藥物治療와 方劑에 對한 經驗은 多方面으로 提示되어 왔으나 鍼灸治療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아 主된 治療 體系로 李¹⁴⁾의 太極鍼法과 權¹⁰⁾의 體質鍼法을 들 수 있는 程度이다.

著者は 두가지 類型體質別 鍼治療 方法을 살펴보고 補充되어야 할 문제점을 提起함으로써 앞으로 類型體質別 鍼治療 方法을 제고하기 爲한 目的으로 이에 관한 것을 研究檢討한바 몇 가지 知견을 얻어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II. 資 料

A. 太極鍼法

(1) 體質 鑑別 判斷穴

太陽人(金)=少府(火)穴補

太陰人(木)=靈道(金)穴補

少陽人(火)=少海(水)穴補

少陰人(水)=神門(土)穴補

(2) 體質別 治療穴

太陽人(肺大肝小)=太淵瀉, 太衝補

太陰人(肝大肺小)=太衝瀉, 太淵補

少陽人(脾大腎小)=太白瀉, 太谿補

少陰人(腎大脾小)=合谷瀉, 太白補

(3) 病別 治療穴

太陽人=肺>脾>腎>肝. 脾肺瀉. 腎肝補.

太陰人=肝>腎>脾>肺. 腎肝瀉. 肺脾補.

少陽人=脾>肺>肝>腎. 脾肺瀉. 肝腎補.

少陰人=腎>肝>肺>脾. 腎肝瀉. 肺脾補.

B. 體質鍼法

Fundamental Formulas of 8 Constitutions

Name of Constitutions	Symbol of formula		Name of Constitutions	Symbol of formula	
Hespero	Therapeutical process	I AC	Hespera	Therapeutical process	VIII RP
		I' 7cl K' 9p I' 9p			X' 10c VIII' 10c IV' 4p VIII' 4p
Saturno		IX AM	Saturna		VRP
		V' 5c K' 5c VII' 7p K' 7p			V' 8c II' 2p VI' 2p
Jupito		IRC	Jupita		VIII AP
		VIII' 7p I' 7p III' 3c I' 3c			V' 6p VIII' 6p IV' 4c VIII' 4c
Mercurio		KRM	Mercuria		VI AP
		V' 5p K' 5p I' 1c K' 1c			IV' 4p VI' 4p II' 2c VI' 2c

Legend :

Symbols of ZANG System

- I ... Liver
- III ... Heart
- V ... Pancreas
- VII ... Lung
- IX ... Kidney
- III ... Simpo (Pericardium)

Symbols of FU System

- II ... Gall bladder
- IV ... Small intestine
- VI ... Stomach
- VIII ... Large intestine
- X ... Urinary bladder
- IV ... Samcho (Triple warmer)

Ⅲ. 總括 및 考察

李¹⁴⁾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에서 “賞見 少陰人 中氣病 舌卷不語 有醫針合谷穴而其効如神 其他 諸病之藥能遠効者 鍼能速者有之 蓋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 應用之穴而必有升降緩速之妙 繫是不可 不察 敬候後之 謹厚而好活人者”라 하여 少陰人 中氣證 舌卷不語한 사람이 合谷穴에 刺針하여 治癒되는 것을 볼 때 다른 體質의 경우에도 體質에 따라 有効한 治療穴이 있을 수 있음을 示唆하였고 이에 대하여 後學들의 研究를 期待하는 表現을 하였다.

바로 이 한 句節이 針治療에 對한 東武의 유일한 見解라 볼 수 있다.

이로 부터 시작되어 類型體質에 따라 應用되는 針治療에 關한 研究가 이루어졌는데 體系를 갖추어 臨床에서 많이 使用되는 方法으로 李¹⁴⁾의 太極針法과 權^{10,11)}의 體質針 理論이 있다.

李¹⁴⁾가 考察한 太極針法은 特徵적으로 세가지 立場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첫째, 主治穴을 手少陰心經의 五輸穴에서 取한다. 둘째, 實한 臟器에 對한 官氣를 다스린다. 셋째, 大小關係에 있는 臟器의 該當經路上 原穴을 取한다는 것이다.

1. 手少陰心經에서 主治穴 選定

主治穴을 心經에서 取한 것은 李가 四端論에서 ‘心者 中央太極’이라 하여 一身을 主宰하는 臟器로 表現하였다 하여 이를 取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內經³⁾에서도 ‘心者 君主之官’이라 하였으므로 이들을 根據로 心經을 選擇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官氣를 利用하여 治한다.

難經 75 難²⁾에 提示되어 있는 母子官使論에 準하여 大小關係에 있는 臟器中 大한 臟器를 우선 實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對한 官氣, 즉 自己를 克하는 氣운을 利用하여 다스리는 方法을 取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太陰人의 경우 臟象의 大小關係가 肝大肺小이므로 肝大를 肝實로 보고 五行의 肝은 木이므로 肝에 對한 官氣인 金을 主治穴로 取하는데 心經에 대입하여 五輸穴上 金穴인 靈道를 取한 것이다.

이 경우 母子官使論에서 ‘實則扶其官 虛則抑其官, 하므로 靈道를 補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少陰人의 경우는 腎大脾小하므로 腎水에 對한 官氣인 土를 取하게 되므로 神門穴을 補하게 되고, 少陽人의 경우는 脾大腎小한 까닭에 脾에 對한 官氣는 木이 되나 李¹⁴⁾는 少陽人의 경우 脾의 五行의 屬性을 火로 把握한 까닭에 火에 對한 官氣인 水를 取하여 心經上의 水穴에 該當하는 陰少海를 主治穴로 使用하게 된 것이다.

太陽人의 경우는 肺大肝小이므로 肺金에 對한 官氣는 火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少府를 取하고 있다.

3. 該當經路의 原穴을 取한다.

靈樞經 九針十二原에 ‘五臟有六腑 六臟有十二原 十二原出於四關 四關主治五臟 五臟有疾 當取之十二原也’라고 原穴로서 臟腑의 虛實 즉 不均衡을 均衡化 시킬 수 있는 方法이 提示되어 있어 이를 利用한 것이다.¹²⁾

이러한 바탕위에서 太陽人은 肺經의 原穴인 太淵을 瀉하고, 肝經의 原穴인 太衝을 補하는 方法을 使用하고, 少陽人은 腎經의 原穴인 太谿를 補하고, 脾經의 原穴인 太白을 瀉하며,

太陰人は肺經의 原穴인 太淵을 補하고, 肝經의 原穴인 太衝을 瀉하고, 少陰人は脾經의 原穴인 太白을 補하고 腎經의 原穴인 太谿를 瀉하여야 할 것이나 ‘腎은 瀉함이 없다’는 點을 고려하여 腎의 原穴인 太谿를 瀉하는 대신 腎黨에 屬하는 大腸의 經絡인 手陽明大腸經의 原穴인 合谷을 取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太陽人は少府, 太淵, 太衝을, 少陽人は陰少海, 太白·太谿를, 太陰人は靈道·太冲·太淵을, 少陰人は神門 太白合谷을 主要穴로 選定하여 이를 應用하여 體質 辨證 및 治療에 使用하는 것이 太極針法이다.

여기에 病證에 따라서 病의 所在가 어느 部位에 存在하느냐를 감안하여 肺黨(耳, 胃脘, 頭腦, 皮毛)에 所在하는 病證의 경우는 太淵을 脾黨(背, 臀, 胃, 乳, 目, 筋)에 所在하는 病證에 對해서는 太白을, 肝黨(小陽, 腰脊, 臍, 鼻, 肉)에 所在하는 病證은 太冲을, 腎黨(大腸, 前陰, 膀胱, 口, 骨)에 發한 病證은 太谿를 追加하여 體質에 따라 上下의 氣의 盛衰를 考慮하여 各其 體質에 부합되도록 補瀉를 適用하여 應用되는 附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太極針法의 概要이다.

이러한 太極針法이 臨床적으로 有効한 效能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理論적으로 問題點을 안고 있다.

첫째, 臟腑論의 概念上 差異를 克服하지 못하고 있다. 針治療에서 主로 使用되는 經絡에 있어서의 臟腑論의 概念은 內經에서 시작된 五行의 臟腑論에 根據를 둔다 할 수 있다.

陰陽應象大論에서 主로 言及되고 있는 五行의 歸類概念에 立脚하여 設定된 것이 經絡이고 이는 五臟六腑에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病證이나 臟象에 대한 概念 역시 人體에 誘發된 作用, 現象 그리고 病證을 五行歸類에 근거를

두고 그 類概念이 지니는 特性에 準하여 크게 五大類型으로 區分한 것이다.⁶⁾ 라는 點을 고려할 때 經絡理論을 包含한 內經의 臟腑病證은 五行에 뿌리를 둔 것임을 알 수 있고 臟象 및 臟의 病證을 論할 때 臟腑間의 關係를 五行의 相生 相克을 통한 循環理論이라 볼 수 있다.

이에 比하여 四象論에서 取하고 있는 臟腑概念은 四焦와 연관되어 四黨이 현실적 차원에서 設定되고 臟間의 關係와 治療의 應用面에 있어서도 氣의 偏在나 病證의 所在를 四焦概念에 立脚하여 파악하고 이를 上下陰陽의 升降原理를 利用하여 均衡을 이루도록 유도하여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表現은 同一하게 肝, 心, 脾, 肺, 腎이란 用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兩辨證體系가 지니는 臟腑概念은 相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李¹⁴⁾가 四象에서 응용되는 臟腑大小關係에 對한 設定을 그대로 經絡理論과 연결시켜 主治穴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남게 되고 이를 補完하기 爲해서는 臟腑概念에 對한 差異가 充分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少陽人에 있어서 各 臟器에 對한 五行配屬이 달라지는 點이다.

李¹⁾는 聖人之 肺脾肝腎과 衆人之 肺脾肝腎을 서로 旁通한다 하여 모든 사람이 지니는 臟腑의 機能은 基本的으로 同一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李¹⁴⁾가 少陽人의 경우에 脾의 屬性을 火로 파악하여 규율에 따라 主治穴로 選定한 것은 문제가 있다.

體質에 따라 同一한 臟인 脾가 어느 體質에서는 火가 되고 어느 體質에서는 土의 屬性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이에 對한 납득할 만한 說明이 添加되어야 할 것이다.

權⁷⁾에 의하여 開發된 體質鍼理論은 李¹⁾의

東醫壽世保元上の 病證論 分類에서 治療方向의 基準을 設定한 것으로 보인다.

一次의으로 少陰人病證의 分類가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裡寒病으로 區分되므로 이중 腎受熱表熱病에는 腎이 熱을 받아서 이루어진 病證으로 판단하여 이를 腎實로 보고 腎을 瀉하는 處方의 針治療를 求한 것으로 보이고, 胃受寒裡寒病은 胃가 寒을 받은 것이니 胃虛로 판단하여 胃虛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補胃方을 使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太陰人 病證은 크게 肝受熱裡熱病과 胃脘受寒表寒病으로 分類되는데 이중 肝受熱裡熱病은 肝實로 판단하여 瀉肝하는 處方을, 胃脘受寒表寒病은 胃脘이란 腑가 經絡上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胃脘이 肺黨에 屬하는 故로 肺에 對하여 表가 되며 夫婦關係를 이루는 大腸을 取하여 大腸虛로 보고 補大腸方을 使用한 것으로 보인다.

四端論에서 提示한 臟象의 大小關係가 少陽人:少陰人, 太陽人:太陰人이 서로 대칭이 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點을 감안하여 少陽人의 경우는 少陰人과 반대로 補腎方과 瀉胃方을, 太陽人의 경우는 太陰人과 반대로 補肝方과 瀉大腸方을 各各 母子官使論에 立脚하여 이를 응용하였다.

以上과 같은 方法으로 臨床에 適用해 본 결과 辨證基準에 대한 點이 問題로 提起되어 이를 補完하기 爲한 方法을 推究하던 끝에 脈에서 어느 정도 恒常性이 認定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 후 부터는 脈에 依存한 辨證에 따라 以上の 治療를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體質辨證의 基準이 달라지게 된 까닭에 體質에 對한 명칭을 木象人(Jupito, Jupita), 土象人(Saturna, Saturno), 水象人(mercuria, murcurio), 金象人(Hespera,

Hespero)으로 結果적으로는 東醫壽世保元과는 다른 分類로 區分하게 된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때, 權¹¹⁾이 이 太少陰陽人의 表現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肝, 大腸, 腎, 胃에 對한 補瀉方을 言及한 것은 問題가 있다고 본다.

權¹⁰⁾은 위의 治療處方을 基本方으로 하고 그위에 病證에 따라 活力方, 麻痺方, 細菌方, 精神方 등을 附方으로 追加하여 응용하고 있다.

이와 類似한 方法이나 다소 差異가 있는 廉¹⁵⁾ 16) 등의 報告가 있는데 이들은 類型의 區分을 脈에 基準을 두고 分類해 볼 때 24 類型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8型 또는 24型的 分類 역시 임상적으로 有意한 結果를 얻는 경우가 있음을 볼때 이에 關한 研究價値는 있다고 보나 現實的으로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問題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太極針法에서와 마찬가지로 內經 臟腑論과 四象臟腑論에 關한 差異가 克服되지 못한 狀態에서 經絡理論에 따른 針治療를 施行한다는 點이다.

둘째, 辨證基準을 脈에 두고 있으며 脈을 보는 位置와 脈圖가 經驗的 有効性 外에 理論的인 根據가 不足한 點이다.

以上에서 類型體質에 따른 針治療에 있어서 代表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는 太極針法과 體質針法에 對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方法이 有効한 臨床的 效果를 얻는 경우가 있으므로 應用價値는 있다고 思料되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問題點이 克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가능한 한 李⁴⁾의 四象論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氣의 偏在나 病所에 對한 點을 고려하여 陰陽升降을 利用하여 正常化 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體質에 따른 針治

療가 發展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IV. 結 論

1. 太極針法은 大小關係에 있는 臟器該當經絡의 原穴과 大한 臟에 對한 官氣에 해당하는 穴을 手少陰 心經上에서 取하여 主治穴로 使用하는 方法이다.

2. 體質針은 四象病證論에서 分類基準이 設定된 方法으로 思料되나 辨證의 기준을 脈에 두고 分類하고 있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四象과는 다른 分類라 할 수 있다.

3. 이들 針治療法은 연구가치는 있으나 가능한 한 陰陽升降을 利用한 氣의 調節이 重要視 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4. 太極針法에서 補完되어야 할 문제점은 辨證體系에 따른 장기개념차이와 소양인의 경우 장기에 대한 五行配屬 문제이고, 體質針의 경우는 장기개념차이와 변증기준이 단지 경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參 考 文 獻

1. 權英植：四象方藥合編，杏林書院，서울，1973.
2. 成樂箕：八十一難經解釋，高文社，서울，1978.

3. 王冰注：黃帝內經，高文社，서울，1971.
4. 李濟馬：東醫壽世保元，杏林書院，서울，1979.
5.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壽文社，서울，1973.
6. 高炳熙：五臟病證 辨證에 關한 方法論研究，東西醫學，6:1，p.32，1981.
7. 權度沅：體質針，대한한의학회보 16호，1965.
8. 權度沅：體質針에 關한 研究，대한한의학회보 21호，pp.32～33，1966.
9. 權度沅：體質針에 關한 小論，대한한의학회보 22호，1966.
10. 權度沅：體質針治療에 關한 研究，中央醫學 25:3，p.327，1973.
11. 權度沅：體質針治療處方에 關한 研究，한국 동서의학연구회 논문집，pp.148～160，1975.
12. 金己培：太極針法，醫林 111號，1975.
13. 宋一炳：四象原論：경희대학교 사상의학교실，1978.
14. 李炳幸：太極針法，제 3 차，세계 침구논문，초록집，p.9，1973.
15. 廉東煥：四象醫學의 再考，대한한의학회지，3:1，p.47，1982.
16. 廉泰煥：24 體質針論과 그 脈診法研究，대한한의학회지，8:1，p.161，1987.